

18~19세기 제주 고지도의 연구*

김 오 순**

— 목 차 —

- I. 들어가는 글
- II. 18~19세기 제주 고지도
- III. 제주 고지도의 지명 분석
- IV. 맺는 글

I. 들어가는 글

인간에게 이름이 있듯이 모든 지역과 장소에는 지명이 존재한다. 지명은 일정한 지역(장소)의 명칭으로 고대로부터 인류가 살아오면서 특정한 위치·범위·유형의 지리적 실체에 대해 공동으로 약정한 고유명사다.¹⁾ 그러므로 지명은 특정 지역과 장소를 상징한다. 아울러 지명은 지역의 자연환경, 특성, 역사성과 사회성을 내포하고 있다. 환경지가 결과인 지명은 객체로서 장소가 갖고 있는 특성과 명명주체로서 인간의 인식이 결합돼 구성된다.

특히 지도에 수록된 지명은 지리지나 다른 종류의 문헌에 수록된 지명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즉 지도의 지명은 언어로서 이름과 그 이름이 배치된 곳(장소)이 연결됐을 때 구체성을 띠 수 있고 지명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도는 이와 같은 것이 구현된 최고의 매체인 것이다.²⁾

따라서 지도에 수록된 지명은 문헌의 지명보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서 분석의 대상으로 매우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이런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도 고지도에 수록된 지명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지도는 18~19세기 제주 고지도인 『해동지도(海東地圖)』 중 「제주삼현

* 이 논문은 필자의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8~19세기 제주 고지도의 연구」)의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이다.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연구사

1) 도수희, 2003, 「한국의 지명」, 아카넷, 15쪽.

2) 오상학, 2005, 「대동여지도의 지명에 관한 연구-경기도 지명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45호, 396쪽.

도(·濟州三縣圖·1750년대 제작·이하「제주삼현도」), 「제주삼읍도총지도(濟州三邑都摠地圖·1734~1754년 제작)」,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1872년 제작)」이다.

이 연구를 위해 분석 대상 지도에 나타난 지명과 기호를 추출하여, 이를 유형별로 나누고 분석하였다.

지명 분류는 기존의 지명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자연지명과 인문지명으로 나누었다. 자연지명은 지형에 따라 산지, 도서(島嶼), 하천, 평야, 호소, 해안, 기타 등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모든 자연지명이 이 범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바닷가에 위치한 바위는 해안이나 기타로 분류가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 분류의 자의성 때문에 유형 구분이 모호할 수도 있다.

인명지명의 경우 기존 연구를 참고하면서 행정, 군사, 경제, 교통, 문화 등의 범주로 구분했다.³⁾

한국 고지도의 경우 대부분 행정목적으로 제작된 관찬지도다. 따라서 행정구역의 명칭이 지명의 기초를 이룬다.⁴⁾ 행정구역의 명칭은 도명, 군현명, 방면, 동리 등으로 세분했다. 당대 사라진 고지명도 행정지명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행정항목으로 분류했다. 군사항목의 경우 군영, 진보, 봉수 등이 포함된다. 교통항목은 역원을 비롯 포구, 도진(渡津) 등이 해당된다. 경제와 관련된 항목은 창고, 목장, 어염(魚鹽), 전답 등이 포함된다. 문화관련 항목은 궁궐, 사묘(祠廟), 학교, 제단, 불우(佛宇) 등이 해당된다.

지명의 유형 분류는 지명의 구성어소를 형태소별로 나눠 분석했다. 즉 국어는 어휘구조가 배의성(配意性)이 짙기 때문에 복합어 또는 분석 가능한 형태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지명의 경우 '기본+기어(基語)'의 복합어적인 구조로 이뤄진 것이 대부분이다.⁵⁾ 따라서 유형 분류는 '-山, -川, -城'과 같이 후반부의 접미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지명을 '전반어소(前半語素·자립형태)+접미사'로 구분하고, 접미사에 따라 유형을 나눴다. 접미사가 생략된 경우 지도에 표시된 위치를 추적해서 접미사를 파악한 다음 각각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지명은 범주에 따라 분류한 다음 유형별 비율을 검토해 전체 경향을 파악했다. 그런 다음 유형별로 세부 항목을 분석해 유형별 지명의 특성을 밝혔다.

이 같은 작업은 제주고지도의 내용 특성을 파악하고 주요 항목을 지도화 함으로써 당시 제주지역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했다. 또 지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18~19세기 제주도의 지역적인 특성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 논문은 처음으로 18~19세기 제주 고지도에 수록된 지명을 통해 당시 사회상을 비교분석했다.⁶⁾ 즉 역사학적 관점에서 제주 고지도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거의 없

3) 기존 연구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간행한 「해동지도:해설·색인」과 동 기관에서 간행한 「조선 후기 지방지도:경기도편(해설·색인)」이 대표적이다.

4) 지리학 분야의 연구는 이런 행정항목 대신 취락항목을 두어 구분했다. 취락항목에 도회, 군현, 동리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행정구역명을 수록했다. (원경렬, 1991; 정장호·신동승, 1995).

5) 정진원, 1982, 「한국인의 환경지각에 관한 연구:촌락명의 분석을 중심으로」, 63쪽, 「지리학논총」 제5호

다고 본다. 따라서 연구자는 역사적 관점을 중심축으로 하면서 지리적 관찰법도 적용해서 18~19세기 제주 고지도에 표기된 지명을 통해서 당시 역사적·사회적 환경을 고찰하고 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18~19세기 제주 고지도의 지명분석을 중심으로 한 시론적 연구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해당 시기 모든 제주 고지도를 연구 대상으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다른 고지도와 비교 분석은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II. 18~19세기 제주 고지도

조선후기 제주 고지도의 제작은 국방의 중요성과 통치의 필요성 때문에 더욱 활발하게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목사 이규성(李奎成·1706년 9월~1710년 12월 재임)이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는⁷⁾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并序·1709년 제작)』 하단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지도는 여백의 수로(水路)를 설명한 부분에서 구지도(舊地圖)와 신지도(新地圖)를 언급하고 있다.⁸⁾ 이를 통해 볼 때 『탐라지도병서』를 제작할 당시 이미 두 유형의 지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이전 시기 지도제작의 전통을 말해주는 것이다.

18~19세기 제주 고지도는 수십 종이 있지만, 이 논문의 논의대상으로 삼은 것은 제주 단독지도와 군현지도집 가운데 수록된 제주 고지도이다.

제주 단독지도는 지도책이나 지도첩, 지지 중에 포함돼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단독의 제주지도를 말한다.⁹⁾ 앞서 밝혔듯이 단독 지도는 전국지도에 포함된 지도보다 당대 제주의 자연, 인문환경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시기 제주 단독 고지도는 『탐라지도병서』,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읍전도』, 『제주지도』 등이 있다.

6) 현대 지명을 대상으로 삼아 연구한 논문은 여러 편 있다. 김옥자, 1992, 「강원도 지명의 유형별 분석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홍천군과 양양군·속초시를 중심으로」,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박태화, 1999, 「영남지방 지명에 관한 연구:창녕군, 봉화군, 남해군의 경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5(1). 이항곤, 1996, 「충청남도의 지명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전경숙, 1979, 「충청북도 지명의 유형분석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진천군과 단양군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현재 옛 지도의 지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오상학의 「대동여지도 지명에 관한 연구-경기도 지명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제45호, 2005가 있다.

7)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지도 자료, 1996, 8쪽.

8) 『탐라지도병서』, 水路 舊地圖云 自濟州距海倉九百餘里 新地圖云 自禾北抵浦吉島一百餘里 既不得尺量水路 則指言其里未得其詳 而自濟州距海倉也 浦吉島幾過其半 則不下四百餘里

9) 양보경, 2001, 「濟州 古地圖의 類型과 特徵」, 『문화역사지리』 제13권 제2호, 90쪽.

현전하는 제주 단독 고지도 중 가장 오래된 지도는 「탐라지도병서」이다. 이 지도는 목판본이며, 수록 내용이 풍부해서 후대에 제작된 지도들이 기본으로 삼을 만큼 영향력이 컸다.¹⁰⁾ 이 지도는 가로 98cm×세로 125cm의 대형지도로, 지도 상단과 하단에 제주의 지리적 상황을 설명한 지지(地誌) 내용이 수록돼 있고, 그 가운데 지도가 그려져 있다. 지도의 외곽에 24방위를 표시하고, 제주도 주위에 일본, 중국, 전라도 남부 지역을 표시했다. 이 지도에 기록된 지지내용을 보면, 제주도의 역사, 크기, 목장, 봉수, 연대, 과원, 방호소, 읍성, 한라산, 산방·천지연·천제연·정방 등 제주의 명승에 관한 내용을 적어 놓았다. 촌점(村点) 150곳, 호구 8995호, 인구 4만 5129명 등으로 기록해 놓았다. 지도에는 마을의 명칭, 포구, 오름 등이 상세히 표현돼 있다.¹¹⁾ 이 지도는 18세기 제주 고지도 제작의 모범이 될 정도로 수록 내용이 매우 자세하지만 목판본 지도여서 판독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대신 「탐라지도병서」 계열 지도인 군현지도집 가운데 「제주삼현도」를 선택했다. 이 지도는 1750년(영조 26)경 제작한 전국 군현지도첩 「해동지도」 중 수록된 같은 이름의 두 종류의 지도 가운데 하나다. 이는 18세기 중반에 제작됐으나 수록 내용은 18세기 초 「탐라지도병서」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작성됐다. 이 지도의 앞면에 기록된 주기(註記)에 보면 「해동지도」를 제작할 때 제주목에 목판으로 간행한 인본(印本) 2종이 있어, 두 종의 지도를 모두 수록했다(耽兩羅地圖 既是本邑印本 而詳略不同 茲存以備參考)고 적혀 있다. 따라서 이 지도가 「탐라지도병서」 계열과 같은 목판본을 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탐라지도병서」 계열 지도라는 사실은 지도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즉 남쪽을 지도의 상단으로 배치한 점, 주변에 24방위를 배치한 점, 서남쪽에 외국의 지명을 배치하고 북쪽으로 한반도 육지부의 지명이 표기된 점이 그러하다.¹²⁾ 이 지도는 「탐라지도병서」의 상·하단에 기록된 설명을 빼고 채색을 적절히 가미해 흑백 목판본 지도보다 아름답다. 한라산 성산일출봉 송악산 등 제주의 경승을 강조해 그렸고, 한라산에서 뿜어내린 임수(林藪)도 두드러지게 표현했다. 지도의 크기는 가로 47cm×세로 30.5cm며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돼 있다.

「제주삼읍도총지도」는 18세기 전반 마정(馬政)이라는 실용적인 목적 아래 제작된 제주 고지도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다른 제주의 고지도보다 목장과 관련된 항목이 매우 상세하게 수록돼 있어서 자료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지도는 제주도를 단독으로 그린 조선시대 가장 큰 대축척 지도(가로 119.5cm×세로 122cm)로,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10) 오상학의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시계열적 고찰」, 『탐라문화』 제24호, 137쪽에 따르면 18세기 전반기의 가장 대표적인 제주 단독 고지도로, 목판본으로 제작돼 널리 유포됐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서울대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등 여러 곳에 소장돼 있다. 승실대가 소장한 「제주지도」와 서울대 규장각이 소장한 「해동지도」에 수록된 「제주삼현도」가 이 지도계열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사실로 미뤄 조정에 보관돼 국가차원에서 군현지도 편찬시 기본도로 활용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1) 양보경 앞의 논문, 2001, 90쪽.

12) 오상학 앞의 논문, 2004, 140~141쪽.

이 지도를 보면 목축문화가 발달된 해발 200~600m 중산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말 목장인 10소장(十所場)과 천미장(川尾場)·모동장(毛洞場) 등의 우목장(牛牧場)이 그려져 있다. 또 각 소장에는 비를 피하던 피우가(避雨家)와 물을 먹이던 수처(水處), 잣성¹³⁾의 출입문(梁)이 표기돼 있다. 특히 산마장의 모습도 상세히 그려져 있다. 산마장에서 키운 말을 진공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모아 마필수를 점검할 때 사용됐던 목책시설도 보인다. 미원장(尾圓場)·사장(蛇場)·두원장(頭圓場)¹⁴⁾ 등이 그것이다.

이 지도는 조선시대 '국마의 보고'로 불리던 제주도 목장사 연구의 기초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지도에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길게 뻗은 숲과 오름, 마을과 포구도 상세히 그려져 있다.

이 지도는 통상 1770년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해¹⁵⁾ 왔지만, 1734년~1754년 경 제작된 제주 단독 고지도라고 본다. 제작 연대를 추정하는 단서는 제주성 안에 표시된 문묘(文廟)와 제주성 남문 밖 사직단(社稷壇)의 위치에서 알 수 있다.

정조 연간 편찬된 『탐라지(耽羅誌·일본 天理大 소장·저자 미상)』에 보면 문묘 즉 제주향교는 경종 4년(1724년) 제주목사 신유익(愼惟益·1723년 8월~1725년 6월 재임)이 향교에 화재가 나자 제주성 동성 안으로 이전했으며, 영조 30년(1754) 제주목사 김몽규(金夢燧·1752년 12월~1754년 10월 재임)가 제주성 남문 밖 3리로 이전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 지도에는 문묘가 제주성 동성에 위치해 있다. 또 이 문헌에는 숙종 46년(1720) 제주목사 정동후(鄭東後서·1719년 6월~1720년 7월 재임)가 사직단을 서문 밖으로 옮겼다가 영조 10년(1734) 제주목사 정도원(鄭道元·1733년 8월~1734년 9월 재임)이 남문 밖 옛 터로 다시 환원시켰다고 기록돼 있는데, 사직단은 바로 남문 밖에 표시돼 있다. 이로 미뤄 볼 때 이 지도는 사직단이 제주성 남문 밖으로 옮겨진 1734년 이후, 제주향교가 남문 밖으로 이설되기 전인 1754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논의 대상인 세 번째 지도인 『제주삼읍전도』는 19세기 대표적인 제주 단독 고지도의 하나다. 이는 조선왕조가 1872년 전국 지도제작의 일환으로 만든 제주도 지도이다. 그 당시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으로 외세와 무력충돌한 조선정부는 서양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했다. 국방과 치안을 위한 관제개혁, 군제 개편, 군사시설의 확충과 경비태세의 강화, 군기의 정비 등과 함께 전국 각 지역, 특히 군사시설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가

13) 중산간 지대에서 방목 중인 말들이 해안의 농경지로 내려와 입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 중산간 지대에 환상(環狀)으로 쌓았던 돌성(石城)으로, 이를 '잣' 또는 '잣담'이라고 한다.

14) 산마장의 점검모습은 『탐라순력도』 중 「산장구마(山場驅馬)」에 잘 표현돼 있다. '원장'은 말을 취합하기 위해 만든 원형목책이고, '사장'은 취합한 우마를 1두 또는 1필씩 통과할 수 있게 만든 좁은 목책통과로이다. 원장은 다시 '미원장'과 '두원장'으로 구분되며, 그 중간을 연결하는 것이 '사장'이다. 구마는 우선 우마를 미원장에 몰아넣고, 사장을 통해 점검한 후 두원장에 취합해 점검했다.

15) 『濟州의 옛 지도(1996:2000)』에는 제작 연대를 1770년대로 추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오상화(2004:142)은 제주읍성 안에 향교가 있는 것으로 보아 향교가 성 밖으로 이전하기 전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 지도의 제작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요했다. 이 지도는 이런 배경 아래 제작된 것이다.

이 지도는 도별로 제본돼 있지 않고, 각 군현별로 독립돼 있는데, 제주도 지도는 제주도 전도(全圖)와 제주(濟州), 정의(旌義), 대정(大靜) 등 삼읍을 분류해 그린 분도(分圖) 등 4장이 수록돼 있다. 이 지도에는 '정의' '대정' 고을이 현(縣)이 아닌 군(郡)으로 표기돼 있는데, 이것은 두 고을이 1864년(고종 1) 군(郡)으로 승격됐기 때문이다.¹⁶⁾

이 지도는 면명(面名)과 소속 동수(洞數), 리명(里名)을 기록해 놓았다. 또 각 면에 소속된 마을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소속된 동리를 뚜렷히 구분해 놓았다. 또 이 지도는 앞 시기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됐지만, 지도 모양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독립된 형태의 제주지도 가운데 가장 정제되고 실제의 모습에 가깝게 표현된 지도로 평가된다.¹⁷⁾ 지도의 구도는 제주를 독립적으로 그린 고지도와 같다. 크기는 가로 109cm×세로 69cm로 비교적 큰 편이다. 현재 서울대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다.

조선 후기 지도첩 가운데 수록된 제주의 대표 고지도로는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총 43면)」 화첩 가운데 게재된 「한라장축(漢拏壯圖·1702~1703년 제작)」이 있다. 18세기 초 제주의 지형 등 자연환경, 관아 배치와 촌락의 위치 등 지역구조, 과거 시험이나 경로잔치 등 풍습, 목장이나 과원 등 제주의 산업, 방어시설 등을 담고 있는 종합 자료이다.

그러나 이 지도는 「한라장축」을 비롯한 기존 지도 도면에 대한 기존 연구¹⁸⁾가 있기 때문에 역시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존하는 18~19세기 제주 고지도 가운데 대표성을 띤 제주 단독지도 3종(「제주삼현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읍전도」)을 분석의 자료로 삼아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Ⅲ. 제주 고지도의 지명 분석

1. 제주 고지도의 지명 개관

「제주삼현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읍전도」의 지명 수는 모두 2288개다.¹⁹⁾ 각

16)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관직고(官職考) 군수조(郡守條)에 「旌義郡守本濟州東道 本朝太宗十六年用按撫使吳湜之啓 析漢拏山南幅圓二百餘里之地 東爲旌義西爲大靜俱置縣監 今上元年陞郡守 大靜郡守本濟州西道 本朝太宗十六年始置縣監 今上元年陞郡守」라 기록돼 있다.

17) 오상학 앞의 논문, 2004, 147쪽.

18) 제주시와 탐라순력도 연구회는 2000년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의 분야별 연구내용을 밝힌 「탐라순력도연구논총(耽羅巡歷圖研究論叢)」를 펴냈다.

19) '한라산'과 같이 삼읍에 모두 소속된 경우 한 지명을 삼읍에 소속하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사(沙)'와 같은 지명은 읍면 단위로 하나로 집계했다. '부면과(夫面果)'의 '원당봉(元堂烽)'과 같은 경우 '부면'이라는 행정지명과 '과원'이라는 경제지명으로 분류했고, '원당봉수'라는 군사지명과 '원당오름'이라는 자

지도별로 지명의 수(표1)를 보면, 「제주삼현도」가 642개(28.0%), 「제주삼읍도총지도」가 926개(40.5%), 「제주삼읍전도」가 720개(31.5%)로 나타난다.

이를 대분류(표2)하면 자연지명은 926개로 40.5%, 인문지명은 1349개로 58.9%, 기타 13개 0.6%를 차지한다. 인문지명의 비율이 자연지명보다 훨씬 높은 데, 이는 경기도 지명을 중심으로 분석한 「대동여지도」와 차이를 보인다.(표3)²⁰⁾ 「대동여지도」의 경우 자연지명 비율이 54.8%, 인문지명 비율이 45.2%로 나타나 있다.

지도별 분포를 보면 「제주삼현도」의 경우 자연지명이 227개로 35.3%, 인문지명이 408개로 63.6%로 지명간 편차가 매우 크다. 「제주삼읍도총지도」의 경우 자연지명이 391개로 42.3%, 인문지명이 530개로 57.2%이며, 「제주삼읍전도」의 경우 자연지명이 308개로 42.8%, 인문지명은 411개로 57.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인문지명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행정 지명이다. 총 555개로 전체지명 가운데 24.3%이다. 그 다음은 교통지명 282개(12.2%), 경제지명 240개(10.5%), 군사지명 240개(10.5%), 문화지명 32개(1.4%) 순이다.

인문지명 중 특기할 만한 사항은 경기도 지명을 중심으로 분석한 「대동여지도」와 비교할 때 행정지명과 경제지명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대동여지도」의 경우 행정지명 비율이 13.5%, 경제지명 비율이 5.3%로, 연구 분석 대상인 3개의 제주도 고지도에 나타난 지명 분포의 절반이다.

<표 1> 분석대상 지도별 지명 수

지 도	도내외	자연지명	인문지명	기 타	계
삼현도	제주	182(32.4%)	373(66.4%)	7(1.2%)	562
	도외	45(56.3%)	35(43.7%)		80
	계	227(35.3%)	408(63.6%)	7(1.1%)	642
도총지도	제주	334(40.4%)	489(59%)	5(0.6%)	828
	도외	57(58.2%)	41(41.8%)		98
	계	391(42.3%)	530(57.2%)	5(0.5%)	926
삼읍전도	제주	268(41.2%)	383(58.7%)	1(0.1%)	652
	도외	40(58.8%)	28(41.2%)		68
	계	308(42.8%)	411(57.1)	1(0.1%)	720
총 계	2287	926(40.5%)	1348(58.9%)	13(0.6%)	2288

연지명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지명총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또 거리단위나 방위를 나타내는 지명은 제외했다. 그러나 판독이 불가능한 지명은 분석에 포함시켰다.

20) 오상학 앞의 논문, 2005, 400쪽.

<표 2> 제주도 전체 지명의 유형별 분포

유형	자 연(926)							인 문(1349)					기타	계
	산지	도서	하천	평야	호소	해안	기타	행정	군사	경제	교통	문화		
도내	467	56	88	16	35	67	55	490	209	240	275	31	13	2042
도외	8	121				13		65	31		7	1		246
계	475	177	88	16	35	80	55	555	240	240	282	32	13	2288
비율	20.8	7.8	3.8	0.7	1.5	3.5	2.4	24.3	10.5	10.5	12.2	1.4	0.6	100

<표 3> 경기도 지역 지명의 유형별 분포

유형	자 연							인 문					계
	산지	고개	하천	평야	호소	도서	해안	행정	군사	교통	경제	문화	
개수	272	73	75	4	6	65	9	124	96	116	48	32	920
비율	29.6	7.9	8.2	0.4	0.6	7	1	13.5	10.4	12.7	5.3	3.4	100

지도에 행정지명이 가장 많은 것은 지도 제작의 목적이 국가에 보고하기 위한 행정용이고, 제주도가 동아시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국방, 경제, 지정학적 요충지로 인식되면서 일찍부터 지도 제작이 이뤄졌다고 추정된다.

경제지명의 비율도 『대동여지도』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데, 이는 제주도의 목장관련 이름과 과원 이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목장관련 지명은 전체 경제지명 240개 중 127개(52.9%)이며, 과원 이름 수는 98개(40.8%)이다. 제주도가 고려시대 이후 국내 최대 목마장이 되면서 국가적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목장 이름이 제주의 고지도에 표기된 것으로 분석된다. 과원은 조선시대 감귤진상을 위해 공과원이 정비되면서 그 중요성이 지도에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자연지명의 경우 산지 지명이 475개(20.8%)로 가장 많다. 산지 지명 다음은 도서 지명 177개(7.8%), 하천 지명 88개(3.9%), 해안 지명 80개(3.5%) 순이다. 평야 지명은 16개(0.7%), 호소 지명은 35개(1.5%)에 불과하다.

한편 문화관련 지명은 총 32개(1.4%)로 매우 적다.

<표 4> 제주삼현도 전체 지명의 유형별 분포

유형	자 연							인 문					기타	계
	산지	도서	하천	평야	호소	해안	기타	행정	군사	경제	교통	문화		
제주목	52	8	15	4	6	19	11	112	32	50	47	5	6	367
정의현	17	2	6	1	1	5		22	22	14	22	1	1	114
대정현	18	4	7	2	1	1	2	16	14	5	11		0	81
제주총계	87	14	28	7	8	25	13	150	68	69	80	6	7	562
도외	2	40				3		24	9		2			80
총괄	89	54	28	7	8	28	13	174	77	69	82	6	7	642
비율	13.9	8.4	4.4	1.1	1.2	4.4	2.0	27.1	12	10.7	12.8	0.9	1.1	100

<표 5> 제주삼읍도총지도 전체 지명의 유형별 분포

유형	자 연							인 문					기타	계
	산지	도서	하천	평야	호소	해안	기타	행정	군사	경제	교통	문화		
제주목	98	8	22	4	13	12	18	121	35	73	51	17	3	475
정의현	52	9	14	1	2	7	6	31	24	30	27	1	0	204
대정현	40	6	5	2	5	3	7	22	16	16	23	2	2	149
제주총계	190	23	41	7	20	22	31	174	75	119	101	20	5	828
도외	4	46	0	0	0	7	0	24	12	0	4	1		98
총괄	194	69	41	7	20	29	31	198	87	119	105	21	5	926
비율	21	7.5	4.4	0.8	2.2	3.1	3.3	21.4	9.3	12.8	11.4	2.3	0.5	100

<표 6> 제주삼읍전도 전체 지명의 유형별 분포

유형	자 연							인 문					기타	계
	산지	도서	하천	평야	호소	해안	기타	행정	군사	경제	교통	문화		
제주목	97	9	13	2	5	13	8	90	31	32	53	5	0	358
정의군	54	5	0	0	1	4	2	47	21	11	21	0	1	166
대정군	39	5	6	0	1	3	1	29	14	9	20	0	0	127
제주총계	190	19	19	2	7	20	11	166	66	52	94	5	1	651
도외	2	35	0	0	0	3	0	17	10	0	1	0		68
총괄	192	54	19	2	7	23	11	183	76	52	95	5	1	719
비율	26.7	7.5	2.6	0.3	1.0	3.2	1.5	25.4	10.6	7.2	13.2	0.7	0.1	99.9

2 지명의 유형별 분포

(1) 자연지명의 분석

분석대상 지도에 나타난 자연지명의 세부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7)

<표 7> 자연지명 세부항목 분류

구분	유형	내 용
자연 (926)	산지(475)	山(63) 岳(274) 峰(60) 기타(78.岩7, 峰1, 旨1, 頂1, 項3 포함)
	도서(177)	島(92) 嶼(10) 기타(75·岩4, 梁3, 峽1, 夾1, 頭1 포함)
	하천(88)	川(75) 水(11) 水口(2)
	평야(16)	坪代(16)
	호소(35)	潭(7) 池(27) 기타(淵 1)
	해안(80)	串(49) 頭(8) 기타(23·沙6, 梁5, 滄, 1 岩1 포함)
	기타(55)	藪(22) 窟(10) 기타(23·泉5, 淵4, 潭1, 項1 포함)

자연지명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산지지명(475개)과 도서지명(177개)로 전체 자연지명의 70%를 넘어서고 있다.

산지항목에선 오름(기생화산)이 455개²¹⁾로 압도적으로 많다. 오름을 지칭하는 단어로는 '악(岳)'이 274개로 가장 많고, '산(山·63)' '봉(峰·60)'²²⁾ 봉('峰·60)'²³⁾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오름 이름 가운데 '악(岳)'이 가장 많은 것은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습관과 관련이 있다. '오름>오름'은 제주에만 남아있는 독특한 옛 말로, 악(岳)이나 봉(峰)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옛 문헌인 『세종실록(世宗實錄)』(권151, 지리지, 정의현)에는 '오름삿기/岳沙只',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권38, 정의현, 봉수)에는 '오름삿기오름/吾音岳沙只', 『남사록(南槎錄)』(권1)에는 "지지에 의하면...사투리로...악(岳)은 '오름/吾老音'이라 한다(地誌...俚語...以岳吾老音)." 『담라지(耽羅志·이원진·1653)』(제주목, 풍속)에는 "제주의 기록에, 말에 특이한 것이 많은데...岳을 '오름·오름·兀音'이라한다(州記, 語多殊音...以岳爲兀音)."고 기록돼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오름(吾音)'은 고유어 '오름>오름'의 한자 차용 표기다. '오(吾)'는 한자의 뜻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말 '오'를 표기

21) 오름이름은 산지지명 중 계곡이나 골짜기, 전남지역의 산 지명은 제외했다. 현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오름의 경우 오름으로 간주했다. 예를 들면, 『제주삼읍도총지도』에 수록된 '건송악(乾松岳)'은 명백한 오름표기이나 현재 지칭하는 오름을 찾기 힘들다.

22) 제주의 경우 봉수는 대개 오름에 설치됐는데, 앞서 밝혔듯 봉수와 산지지명으로 2중 분류했음을 밝혀 둔다. 따라서 오름을 지칭하는 접미어로 '봉(峰)'을 넣었다.

23) 오름을 '봉(峰)'으로 표기한 예는 『제주삼읍도총지도』에 '적봉(赤峰·남제주군 성산읍 신양리 붉은 오름)'이 유일하게 나온다.

한 것이다. '음(音)'은 한자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말 '오름'의 말자음 'ㅁ'을 표기한 것이다. 『세종실록』의 '악(岳)'은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을 고려했음은 물론 읽을 때도 뜻으로 읽어 '오름'이라 했다.

따라서 예부터 제주에서는 악(岳)의 뜻으로 '오름·오름>오름'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악(岳)과 봉(峰)은 그 뜻이 약간 차이가 있으나 제주에서는 오름(오름)을 한자로 표기할 때 주로 '악(岳)/오름'을 써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악(岳)/오름'보다 '봉(峰)/오름'이 우세한 빈도를 보이고 있다.²⁴⁾

산지 항목에서 오름 이외에 모루(旨·북제주군 한경면 두모리 살레모루·山來旨) '암(岩)' 등이 나온다.

도서와 관련된 지명은 177개이다. 섬의 이름은 제주도 64개, 전남일대 103개 표기되어 있다. 섬을 지칭하는 단어로 '도(島)'가 92개로 가장 많다. 그외 '암(岩·4)²⁵⁾ '협(峽·1)²⁶⁾ '양(梁·3)²⁷⁾ 등이 쓰였다. 도서 관련 지명으로는 제주해안의 '여(嶼)'가 세 지도에 모두 표기됐는데, 선박항해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표기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²⁸⁾

하천지명으로는 '강(江)'보다는 규모가 작은 '천(川)'이 가장 많다. 모두 75개다. 세 지도에 표기된 현재 하천은 모두 25개인데, 제주도가 고시한 지방2급 하천 22개가 대부분 표현돼 있다. 이들 하천은 주로 제주도 남·북부에 집중돼 있다. 이는 제주의 하천이 한라산을 중심으로 발산하는 방사상의 하계모양을 이루는 것과 일치한다. '천(川)'외에 나타난 하천지명은 '수(水)' 11개, '수구(水口)' 2개이다. '수(水)'는 제주도 중산가에 있는 목장용 수처(水處)이다. '수구(水口)'는 제주읍성내 남수구와 북수구를 가르킨다.

해안과 관련 지명으로는 '곶(串)', '두(頭)', '사(沙)', '양(梁)' 등이 사용됐다. 곶(곶)은 해안으로 돌출한 지형에 붙이는 이름인데, 49개로 해안지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두(頭)'는 육지부와 닿아 해안에 뾰족하게 나온 바위군으로 대개 쓰이는데, 제주시 '용두암'이나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앞바다의 '용머리'를 '용두(龍頭)'로 표기하고 있다. '사(沙)'는 현재 해수욕장에 해당하는 지명이다. '양(梁)'은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가 좁아 물살이 매우 빠른 전남 도서지역에 많이 보이는데, '위량(慰梁)'과 같은 지명이 그 예다.

24) 오창명, 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출판부, 4~7쪽.

25) 『제주삼읍전도』에 보면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해안에 있는 '형제도(형제섬)'를 '형제암(兄弟岩)'으로 표기했다.

26) 『제주삼읍전도』에 보면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 '눈섬'을 '무산협(巫山峽)'으로 표기했다.

27) 『제주삼읍도총지도』에 전남 완도군 노화읍 넓도를 '광아량(廣鰲梁)'으로 표기한 것이다.

28) 『속중실록』, 숙종 3년 5월 8일 계미.

실록 내용에 보면, 제주목사 윤창형(尹昌亨)이 바닷가에 배를 정박하는 곳에다 성을 쌓는 지형을 개록(開錄)하여 장제한 것을 가지고 복계(覆啓)하기를 "제주 새 고을의 해안에 배가 정박하는 곳은 모두 암석이 깔려있어 큰 배는 들어갈 수 없으므로 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제주의 도근천과 화북 등 두 곳이 다른 데와 비교하면 조금 넓기는 하나 명월소는 선소(船所)를 버리고서 은벽한 곳으로 옮기어 설치했으니, 마땅히 독포로 옮기어 설치해야 한다고들 했습니다."고 기록돼 있다.

호소와 관련된 지명으로는 35개로 많지 않다. 하지만 제주 목장의 물 공급처로 그 의미가 적지않다. 접미사로 분류한 결과, '지(池)'가 27개, '담(潭)'이 7개, '연(淵)' 1개 쓰였다. '수(水)'나 '지(池)'는 대부분 제주목장의 우마의 물 공급처이다.

평야관련 지명은 16곳이며, '평대(坪代·벵디)'²⁹⁾로 표기돼 있다.

자연항목 가운데 기타 지명은 모두 55개이다. '수(藪)' '굴(窟)' 등이 사용됐다. '수(藪)'는 '숲'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이며, '곶'이라고 한다. 현재 제주 '곶자왈'지대를 중심으로 당시 큰 숲지대가 있는 곳에 사용됐다.

(2) 인문지명의 분석

인문지명으로는 행정, 교통, 경제, 군사, 문화 지명이 해당된다. 행정 영역에는 리명·군현·관청·외국지명 등이며, 군사 영역에는 진보·봉수·연대·성지, 교통영역은 포구·역원·도로 등이 해당된다. 경제 영역에는 목장·과원·창고 등이 포함되며, 문화 영역에는 제단·정문(旌門)·사묘 등이 해당된다.

그렇다면 제주도 고지도에 인문 지명의 세부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8)

<표 8> 인문지명 세부 항목 분류

구분	유형	내 용
인문 (1349)	행정(555)	리명(461) 방면(11) 관청(12) 군현(21) 외국명(50)
	군사(240)	진보(62) 봉수(73) 연대(102) 성곽(3)
	교통(240)	포구(265) 기타(17·院9, 중화처3, 도로2, 站1, 津1)
	경제(282)	과원(98) 목장(60) 梁(목장문·47) 피우가(10) 기타(25·창고 5, 전담6, 목적시설4, 어염1 포함)
	문화(32)	제단(9) 정문(8) 사묘(6) 문(3) 기타(6·학교2, 누대2, 불우1, 기타1)

인문지명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행정지명이다. 행정지명 가운데는 마을이름이 단연 많다. 세지도에 461개 표기돼 있다. 「제주삼현도」에는 제주목 108개, 정의현 42개, 대정현 25개 등 144개가 표기돼 있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제주목 116개, 정의현 30개, 대정현 21개 등 167개가 나와 있다. 『제주삼읍전도』에는 제주목 83개, 정의군 42개, 대정군 25개 등 150개가 표기돼 있다. 과거 제주도 4개 시·군 별로 정리하면 제주시가 117개(25.1%), 북제주군 193개(41.4%), 남제주군 102개(21.9%), 서귀포시 54개(11.6%)이다. 「제주삼현도」

29) 오창명(1998:281)에 따르면 '평대(坪代)'는 '벵디'의 한자 차용 표기다. '평(坪)'은 음이 '평'이지만 격음으로 변하기 전음인 '벵'의 음가자 표기, '대(代)'는 음이 '대'이지만 유사음 '디'의 음가자 표기다. '벵디'는 '넓은 벌판'을 뜻하는 제주방언이다. 따라서 제주지명에서 '평야'는 한반도 평야지대를 일컫는 '평야'와 그 개념이 다르지만 '넓은 벌판(들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서 '평야'로 분류했다.

에는 제주시 45개, 북제주군 64개, 남제주군 24개, 서귀포시 11개의 마을관련 이름이 표기돼 있다.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제주시 49개, 북제주군 68개, 남제주군 33개, 서귀포시 17개가 나오며, 『제주삼읍전도』에는 제주시 24개, 북제주군 60개, 남제주군 46개, 서귀포시 20개다. 이러한 마을 지명 수는 당시 군현의 위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현재 제주시와 북제주군에 해당하는 제주목이 가장 많고, 정의현(서귀포시와 남제주군 동부지역)·대정현(서귀포시와 남제주군 서부지역) 순이다.

행정 지명은 18세기 제작된 「제주삼현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촌(村)’과 ‘리(里)’를 혼용하고 있으나, 1864년 행정개편 뒤 제작된 『제주삼읍전도』는 마을이름을 모두 ‘리(里)’로 통일해 표기했다. 마을 소속도 면(面) 단위로 묶어서 표기하고 있어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군현명칭은 21개로 제주 도내를 비롯, 전남지역 강진 진도 등이 표기돼 있다. 외국지명을 표기한 것도 특징적이다. 세 지도에는 모두 50개의 외국지명이 적혀 있다. 제주를 독립적으로 그린 고지도의 경우 외국지명을 표기한 사례가 많은 데, 이것은 동아시아 중심지로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통지명(282개)에선 포구이름의 비중이 가장 많다. 모두 265개이다. 제주섬을 두른 포구 이름이 거의 빠짐없이 표기돼 있다. 도서지역으로서 제주 고지도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역원이나 도로, 진(津)의 지명 비중은 매우 적다. 『대동여지도』의 교통항목 가운데 역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과 차이를 보인다.

경제 관련 지명은 모두 240개다. 과원이 98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목장 60개, 목장문(梁)이 47개, 우마들이 비바람을 피했던 피우가 10개, 목책시설, 창고 등이 표기돼 있다. 반면 창고의 지명은 적다. 제주읍치의 중심이던 제주목, 제주 동·서부지역의 행정과 군사방어의 중심이던 북제주군 구좌읍 하도리 소재 별방진과 북제주군 한림읍 명월리 소재 명월진에 보일 뿐이다.

군사 관련 지명은 모두 240개이다. 해안방어시설인 ‘연대(煙臺)’가 102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봉수(烽燧)’ 73개, ‘진보(鎭堡)’ 62개, ‘성곽(城郭)’ 3개 순이다.

군사 지명 가운데 진보는 제주 3읍성 9진성이 정비된 17세기 이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세 지도 모두 당시 9개의 제주의 방호소(防護所·鎭) 뿐만 아니라 옛 서귀진, 옛 동해 방호소, 옛 정의현성도 낱낱이 표기했다. 세 지도의 제작목적이 군사적인 측면이 강한데다 제주도의 군사요충지로서 위치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도 문화지명으로 32개가 표기돼 있다. 관련 지명으로는 ‘단(壇)’ ‘묘(廟·사묘)’ ‘문(門·관아의 문)’ ‘정문(旌門)’ 등이 보인다. 문화항목이 적은 것은 세 지도가 행정이나 군사 등 실용적인 목적에서 제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IV. 맺는 글

이 연구는 18~19세기 대표 제주의 고지도인 「제주삼현도」 「제주삼읍도총지도」 「제주삼읍전도」의 지명에 대한 시론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세 지도에 표기된 모든 지명을 추출하고 각각의 지명들을 인문과 자연의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 유형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지역의 지명을 군현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제주목의 지명 수가 1200개로 가장 많고, 정의현(485개)·대정현(357개) 순이었다. 전남과 제주주변을 중심으로 뻗친 외국 지명을 포함한 도의 지명은 246개다. 즉 제주지역의 경우 지명의 위세가 큰 고을의 지명 수가 많다.

둘째, 제주도 옛 지도에 표기된 지명을 자연항목과 인문항목으로 크게 나누면, 인문항목 지명이 많다. 자연지명이 926개, 인문지명이 1349개로 집계됐다.

자연 지명을 세부항목으로 분류하면, 산지항목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도서, 하천, 해안 순이었다. 산지의 경우 '산(山)'보다는 '악(岳)'으로 표기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제주의 기생화산인 오름을 '악'으로 지칭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서지명으로는 '도(島)'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천지명으로는 '천(川)'이 '수(水)'보다 많이 쓰였다. 해안은 '곶(串)'이 대부분이다.

호소와 평야 항목은 매우 적은 편이다. 호소는 그 수는 적지만, 제주중산간에 산재해 있던 목장의 주요 수처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특기할만 하다.

자연의 기타 항목에는 현재 제주의 꽃자왈 지대가 '수(藪)'로 표기되어 있다.

셋째, 인문지명의 유형을 분석하면, 행정 지명이 가장 많다. 교통·군사·경제 지명이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이것은 「대동여지도」의 경제 지명의 비중이 다른 지명에 비해 낮은 것과 대조를 이룬다. 제주 옛 지도에 경제항목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제주에 있었던 공과원과 목장 관련 지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원 이름은 감귤 진상과 관련이 있고, 목장 이름은 국마의 보고로서 제주도의 위상을 반영한 것이다.

행정 관련 항목에서는 마을이름을 기록한 '리명(里名)'이 가장 많고, 군현·관청·방면 등이 포함돼 있다. 행정지명의 대부분을 차지한 마을이름은 경우 조선후기 면리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한 행정제도의 정비, 인구수의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군사·항해 목적에서 동남아 일대 외국의 이름을 표기한 것은 다른 육지부 지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대목이다. 행정 지명은 18세기 제작된 「제주삼현도」와 「제주삼읍도총지도」에는 '촌(村)'과 '리(里)'를 혼용하고 있으나, 1864년 행정개편 뒤 제작된 「제주삼읍전도」는 마을이름을 모두 '리(里)'로 통일해 표기했다.

교통 관련 항목에서는 포구의 이름이 가장 많다. 행객의 숙소인 원(院)이나 참(站)은 매

우 적다. 도로망은 선으로 표기돼 있으나 도로 이름은 극히 적다.

교통항목 중 포구 이름이 많은 것은 『대동여지도』의 경기도 지명 분석결과와 사뭇 다르다. 경기도 지역은 육상교통의 중심축을 형성한 역원의 비중이 높았다.

경제 관련 항목에서는 과원과 목장 지명이 두드러진다. 당시 도내의 공과원이 표시돼 있으며, 목장과 목장시설도 빠짐없이 표기돼 있다. 공과원은 감귤을 진상하기 위해 설치됐고, 목장은 대부분 관설목장이었는데, 조선시대 말의 공급처인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목장 관련 지명은 『제주삼읍도총지도』가 두드러진다. 삼읍의 목장뿐 아니라 목장 관련 시설, 목책시설까지 표기해 놓았다.

군사 관련 항목에서는 봉수망이 가장 많이 표시돼 있다. 제주 3읍의 읍성과 진성도 상세히 적혀 있다. 시대별로 수의 차이는 있으나 제주의 중요방어시설은 빠짐없이 표기해 놓고 있다. 도서지역인 제주의 군사시설에 대한 상세한 표기는 전란이후 강화된 해안방어의 중요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장은 표기돼 있지 않으며, 창고 지명도 소수이다.

문화항목은 매우 적은 편이다. 제단이 가장 많고 효부·효자·열녀를 기리기 위한 정문, 사묘, 누대, 서원 등이 표기돼 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할 때, 세 지도는 18~19세기 행정·교통·경제·군사 항목을 고루 수록한 당시 제주지역의 사회변화상을 반영한 관찬지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 지도는 모두 18~19세기 제작된 것으로, 제주사회의 큰 변화상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좀더 구체적인 변화상은 당대 여러 고지도를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해야 하므로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문헌자료

- 「朝鮮王朝實錄」
「東國輿地勝覽」
金尙憲 편저, 「南槎錄(1601~1602)」
李元鎮, 「耽羅志(1653)」
李益泰, 「知瀛錄(1696)」
李衡詳, 「南宦博物(1704)」
李奎成, 「耽羅地圖并書(1709)」
李衡祥, 「耽羅啓錄抄」, 「瓶窩全書(1715)」 권 10
「耽羅防營總攬(18세기 중반)」
「濟州邑誌(1780년대)」
李源祚, 「耽羅誌草本(19세기 중반)」
「濟州啓錄(1846~1884)」
「濟州郡邑誌(1899)」
「旌義邑誌(1899)」
「大靜郡邑誌(1899)」
「三郡戶口家間摠冊(1904)」
金錫翼, 「耽羅紀年(1918)」
제주도·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1999, 「備邊司謄錄 濟州記事」

2. 지도자료

- 가칭 「耽羅圖(17세기 후반)」
「耽羅巡歷圖(1702~1703)」
「耽羅地圖(1709)」
「海東地圖(1750년대)」 중 「濟州三縣圖」
「濟州三邑都摠地圖(1734~1754년)」
「濟州三邑全圖(1872년)」
「濟州郡邑誌」의 「濟州地圖(1899)」
「旌義邑誌」의 「旌義地圖(1899)」

『大靜郡邑誌』의 『大靜郡地圖(1899)』
국립지리원의 25,000분의 1지도(2003년)

3. 기타 문헌자료

- 강길부, 1987, 「국토와 지명」, 『도시문제』 제22권 7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강만익, 2001, 「조선시대 제주도 관설목장의 경관연구」,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 강창룡, 2004, 「문헌과 고고학적 자료로 본 상서로운 산(瑞山)의 위치에 관한 고찰」,
『제주문화재연구』 제2호,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
- 강창룡·고창석·김상옥 등 공저, 1997,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 고광민, 2004, 『제주도 포구 연구』, 도서출판 각
- 고창석, 1991, 「조선후기 면리제상의 영평동」, 『영평마을』, 제주대박물관
- 김경옥, 2001, 「제주목장의 설치와 운영-탐라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4권
1호, 역사문화학회
- 김동전, 2000, 「18세기 제주도의 행정과 도로」,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탐라순
력도연구회
- 김명철, 2000, 「조선시대 제주도 관방시설의 연구-읍성·진성과 봉수·연대를 중심으로」,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 김봉옥, 1994, 『新耽羅錄』, 제주문화방송
- 김봉옥, 2000,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 김봉옥·신석하, 1996, 『제주의 방어유적』, 제주도
- 김오순, 2002, 『탐라순력도 산책』, 도서출판 제주문화
- 김종철, 1995, 『오름나그네 1·2·3』, 도서출판 높은오름
- 김찬읍 외 옮김, 2002, 『譯註 耽羅志』, 푸른역사
- 남도영, 2001, 『제주도목장사』, 한국마사회박물관
- 남제주군, 1996, 『남제주군 고유지명』
- 도수희, 2003, 『한국의 지명』, 아카넷
- 박용후, 1992, 『제주도 옛 땅이름 연구』, 도서출판 제주문화
- 북제주군, 2000, 『북제주군지 상·하』
- 북제주군·(사)제주학연구소, 2005, 『북제주군 마을 지명 유래-추자면 우도면』
- 사단법인 꽃자왈사람들, 2005, 창립기념행사 자료집
- 서귀포시, 1998, 『서귀포시 문헌자료집』
- 서귀포시, 2002, 『서귀포시지 상·하』

- 아세아문화사, 1983, 한국지리총서 『邑誌』 6 제주도
- 양보경, 2001, 「濟州 古地圖의 類型과 特徵」, 『문화역사지리』 제13권 제2호
- 오상학, 2000,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의 지도학적 가치와 의의」, 『탐라순력도논총』,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 오상학, 2004, 「조선시대 제주도 지도의 시계열적 고찰」, 『탐라문화』 제24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오상학, 2005, 「대동여지도의 지명에 관한 연구-경기도 지명을 중심으로」, 『지리학 논총』 제45호, 서울대 국토문제연구소
- 오창명, 1993, 「제주도지명연구사」, 『돌과 바람의 역사』, 제주역사연구회
- 오창명, 1996, 「제주도 지명 표기의 연구:조선후기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탐라문화』 16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오창명, 1997, 「제주도 마을(洞里)과 산악 이름의 종합적 연구」, 『탐라문화』 18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오창명, 1997, 「지명의 차자 표기에 대한 해독:제주지역 오름이름의 어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17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오창명, 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 오창명, 2004, 「제주도 마을이름 연구」,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이찬, 1979, 「十八世紀 耽羅地圖考」, 『지리학과 지리교육』 9
- 정장호·신동승, 1995, 「국민학교 교과서의 지명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25
- 정진원, 1982, 「한국인의 환경지각에 관한 연구:촌락명의 분석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9
- 제주도, 1993, 『濟州道誌』 1·2·3권
- 제주도, 1995, 『濟州語辭典』
- 제주도, 1997, 『제주의 오름』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1996, 『濟州의 옛 지도』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2003, 『2003 비양도 학술조사 보고서』
- 제주도사연구회, 1992,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 제주시·제주대학교 박물관, 2005, 『제주목 지명총람』
- 제주시·제주문화원, 1996, 『제주시 옛 지명』
-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탐라순력도연구논총』
- 기타 『우도지』 등 마을지류